

# 가정과 사회적 자본, 그리고 경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이 정 전

##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III. 가정은 사회적 자본 형성의 중심 |
| II. 새롭게 부각되는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 | IV. 맺는 말<br>참고문헌       |

### I. 머리말

IMF경제위기, 그리고 이를 전후해서 줄이어 더지는 각종 참사들, 끊이지 않고 언론매체에 오르내리는 각종 부정부패 스캔들과 범죄 사건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 사회가 총체적 부실로 빠져들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외국의 석학들의 입에서도 “한국의 기적”은 이제 끝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또 하나의 현상은 높은 이혼율, 높은 노령화율, 낮은 출산율 등이다. 우리나라의 이혼율과 노령화율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고 출산율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한 때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자랑하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이런 우려스러운 지표에서 세계의 선두를 달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혼율이나 노령화율 그리고 출산율은 모두 가정에 직결된 지표다. 가정은 한 사회의 근본을 이룬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의 급격한 변모가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실과 무슨 깊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다. 노령화와 낮은 출산율은 우리 사회의 활력을 저하시킴으로써 경제적으로도 큰 악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는 이미 많이 나돌았는데, 드디어 얼마 전에는 모 유력 일간지가 이 문제를 “국력붕괴”와 연결시켜 1면 톱으로 뽑았고 이어서 사회면 특집으로 다룬 바 있다. 이 신문은 현재의 낮은 출산율과 높은 노령화율의 경제적 효과를 “20년 후 일할 사람 340만 명 준다”는 구체적인 진단과 “우리 사회가 꿈꾸는 ‘소득 2만 달러 시대’가 물 건너간다”는 상징적인 진단으로 요약하면서 범국민적 차원의 대책강구를 촉구하였다.<sup>1)</sup>

이와 같이 낮은 출산율과 높은 노령화율의 경제적 효과는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남에 비해서 높은 이혼율로 상징되는 소위 급속한 “가족해체”(혹은 “가정양태의 다양화”)가 우리의 경제에 미칠 파장,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경제의 생산력이나 경쟁력에 미칠 파장은 그리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sup>2)</sup> 가족해체와 관련하여 단연 눈에 많이 띄는 연구는 범피

본 논문은 2003년 8월 22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가정학회가 주관한 「가족해체방지 및 건강가정 육성 지원을 위한 공청회」의 주제 발표임.

와 각종 사회적 일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들일 것이다. 흔히 이혼과 재혼을 포함한 가족해체의 가장 큰 제1차적 피해자는 자녀들이라고 말한다. 표면적으로 보면, 가족해체는 가족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안긴다. 이혼이 아동 있는 가정의 소득 및 소비수준을 감소시킨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있다.<sup>3)</sup> 가난하지 않던 가정도 이혼하면 가난해지면서 자녀들은 경제적인 문제에 시달리게 된다.

그러나 아동상담소에 수용된 가출아동의 약 60%는 결손가정 출신이라는 점은 가족해체가 자녀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에 그치지 않음을 시사한다.<sup>4)</sup> 문제는 이들이 당하는 피해가 결국 높은 범죄율과 자살률, 폭력, 일탈 등의 형태로 사회전체의 피해로 되돌아온다는 것이다.<sup>5)</sup> 최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높은 이혼율과 가정결손이 어린아이를 황폐화시키고 미국사회를 멍들게 하며 나아가서 미국사회를 총체적으로 쇠퇴케 하는 큰 원인이라는 사회학자들의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sup>6)</sup>

이혼과 재혼이 여러 가지 경로로 자녀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지어 이혼을 하나만 보아도 그 사회의 범죄율을 예측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sup>7)</sup> 범죄는 한 사회가 올바르게 형성되고 유지되는 것을 철저히 방해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고 보아 후쿠야마교수는 『대붕과 신질서』에서 범죄의 문제를 상세히 다루고 있다. 그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론과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결국 가정해체가 서구사회의 높은 범죄율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sup>8)</sup> 만일 후쿠야마교수의 이 진단이 사실이라면 범죄나 비리의 경제적 손실을 추정함으로써 가족해체의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가족해체의 문제를 다루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가족해체의 문제에 너무 집착하다보면 일반가정에 있어서 가정기능의 중요성, 특히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긍정적 기능의 중요성이 그늘에 가려버릴 우려가 있다. 일반가정에서의 가정기능의 많은 부분이 해체된 가정에서는 정지된다고 보면, 가족해체의 사회적 파장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진다. 따라서

일반가정의 기능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가족해체의 사회경제적 파장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비록 우리나라에서 가족해체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지만, 아직도 일반 가정이 훨씬 더 많다.<sup>9)</sup> 본 논문의 목적은 일반가정의 기능, 그 중에서도 특히 최근 크게 각광을 받고 있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형성에 대한 가정의 긍정적 기여를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한편으로는 가정과 국민경제 사이의 연결고리를 밝히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가족해체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조명해보는 것이다.

일반가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또 한 가지 이유는, 표면상으로는 정상적이지만 내용상 종전의 가정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는 가정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가정에 있어서 가족학대율이 해체된 가족의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up>10)</sup> 부부가 함께 사는 가정의 경우 응답자의 46.7%가 이혼을 고려해본 적이 있다고 나타난 변화순 등의 설문조사 결과는 일반가정도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음을 시사한다.<sup>11)</sup>

표면상 일반가정도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 현실이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두드러진 현상의 하나는 소위 “상품화 현상”이다. 과거 가족구성원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던 많은 일들이 오늘날의 가정에서는 점차 돈으로 해결되고 있다. 예를 들면, 옛날에는 각 가정에서 김치를 직접 담가 먹었지만, 오늘날의 많은 가정들은 중국에서 수입한 김치를 사먹고 있다. 좋은 나쁜의 이와 같이 돈으로 때우는 현상은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 사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은 육아 및 노인부양기능을 많이 상실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탁아소나 양로원 등이 많이 설립되고 있다.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이는 가정의 육아 및 노인부양기능이 시장의 원리에 맡겨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탁아소 및 양로원이 태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빚발치고 있다. 이런 주장은 결국 그런 기능을 세금으로 해결하자는 주장에 진배없다. 시장에 맡기

든 혹은 정부가 담당하든, 그 어느 방법이나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에는 별 다름이 없다.

어떻든, 우리 가정의 상품화가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저해하면서 결국 국민경제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본 논문이 제기하는 가설이다. 물론 이 영성하고 대담한(?) 가설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많다. 하지만, 반증의 가능성이 높은 대담한 가설이 과학의 발전을 이끌어 간다고 일찍이 칼 포퍼(Karl Popper)가 말하지 않았던가?

## II. 새롭게 부각되는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

### 1. 사회적 자본의 개념

흔히 돈이 있어야 돈을 번다고 말한다. 이 말은 밑천이 있어야 돈을 벌 수 있다는 뜻이다. 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자본이 있어야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 자본부족, 이것이 가장 빈번히 꼽히는 경제성장의 큰 걸림돌이다.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나라들이 기를 쓰고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자본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자본이라고 하면 흔히 화폐자본을 떠올리게 되지만, 사회간접자본도 매우 중요한 자본의 한 종류다. 도로, 항만, 철도, 공업단지, 공항, 발전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은 기업의 생산비를 낮추고 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수적이다. 지난 80년대 급속한 민간부문의 팽창에 발맞추어 사회간접자본을 공급해주지 못했던 탓에 90년대 들어와 사회간접자본이 크게 부족하게 되었고 이것이 우리 경제성장에 한 장애요인으로 꼽혀왔음은 잘 알려진 일이다.

북한이 외자를 유치하려고 애를 쓰지만 외국기업들이 선뜻 나서지 않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도 바로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이다. 대체로 보면, 선진국은 사회간접자본이 비교적 잘 조성되어 있는 나라들이고 후진국은 그렇지 못한 나라들이다. 그런데, 선진국에서도 차츰 부족현상이 나타나면서 최근 들어 크게 문제시되고 있는 자본이 있는데 소위 '사

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바로 그것이다.

『신뢰(Trust)』라는 저서에서 후쿠야마교수는 사람들이 어떤 공동목적을 위하여 조직이나 집단을 구성하고 상호신뢰아래 서로 협력하는 능력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정의하였다.<sup>12)</sup> 대체로 보면, 사회적 자본이란 사람들이 서로 협조하고 신뢰하고 이해하고 동정하는 성향, 즉 다른 사람을 이방인이나 경쟁자 혹은 잠재적 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동반자로 인식하는 성향, 혹은 이런 성향을 낳는 문화적 가치 및 태도를 말한다. 그러므로 사회적 자본은 각 개인으로 하여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으로부터 벗어나 사회적 관계에 대하여 공동책임을 지며 공동이익을 강하게 의식하는 공동체 구성원으로 탈바꿈시킴으로써 사회적 결속을 다지는 힘으로 인식된다. 사회적 자본을 이런 식으로 정의할 경우 특히 신뢰와 호혜가 그 핵심적 요소가 된다. “신뢰는 어떤 집단이나 조직을 효율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윤활유와 같다”고 후쿠야마교수는 말한다.<sup>13)</sup>

### 2. 도덕심은 경제적으로도 귀중한 자원

최근에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이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이것의 감소에 대한 사회적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의 감소라는 표현은 보통 사람들에게 그리 실감나지 않는다. 그 대신 우리 사회의 도덕심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든가 윤리가 땅에 떨어졌다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 사회적 자본이라는 말 대신에 도덕심이라는 말을 써도 큰 상관이 없다. 도덕심이 감소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사회적 자본이 감소하고 있다는 뜻이며,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의 도덕심이 경제적으로도 귀중한 자원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보자. “춘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매년 봄철만 되면 노사대립으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진다. 다른 것은 그만두고라도 노사분규 때문에 생산이 마비됨으로 인한 국민 경제적 손실만 해도 엄청나다. 만일 노사 모두 충만한 도덕심을 가지고 평소부터 상대방을 진정 가족처럼 생각하며 성실하고

정직한 자세로 상대방을 대하였다고 하면 아마도 춘투라는 것은 아예 있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노사갈등이 없어진다는 것만으로도 국민경제에 엄청난 이익이 발생한다. 노동에 대한 감시·감독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만일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 깊은 신뢰관계가 형성된다면 이런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고, 그 만큼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상품의 경쟁력은 올라갈 것이다.

도덕심 혹은 사회적 자본은 경제활동의 비용을 줄여줌으로써 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생산성을 높인다. 거의 모든 상거래는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내가 산 자동차가 과연 믿을만한 것인지를 써보지 않고는 모른다. 기업이 노동자를 고용할 때, 이 노동자가 과연 믿을만한 사람인지를 사전에는 잘 모른다. 노동자의 입장에서든 과연 그 기업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좋은 직장이 될 것인지를 잘 모른다. 『질주하는 세계』에서 기든스교수도 강조하였지만, 과학과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이 세상 역시 점점 더 통제하기 어려워지고 있으니 이상한 노릇이다.<sup>14)</sup> 불확실한 세상에서는 믿을 수 있어야 마음놓고 거래할 수 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상거래는 상호 신뢰를 전제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사람들 사이의 높은 신뢰, 즉 사회적 자본은 상거래를 활발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일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사기나 불공정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무척 조심하고 신경을 쓴다. 이런 개인들의 노력이 여러 가지 사회적 관행으로 구체화된다. 예를 들면, 영수증을 주고받고 보관한다든지, 예약을 할 때에 예치금을 요구한다든지, 구매하기 전에 시험해본다든지, 반드시 문서계약을 한다든지, 증명서 제시를 요구한다든지 하는 이 모든 사회관행들은 거래상대방을 불신하기 때문에 취해지는 것들이다. 범죄예방을 위한 사설경비나 사설경찰에 소모되는 물적·인적 비용도 결코 만만치 않다. 미국의 백화점에는 판촉요원보다 사설경비요원이 더 많다고 한다. 각 백화점이나 슈퍼마켓에서 매출액의 10% 정도가 도난당한다고 하는데, 물론 이 도난으로 인한 손실은 고스란히 물건값에 얹힌다. 만일 모

든 사람이 정직해진다면 이런 도난이 없어질 것이고, 그러면 그 만큼 물건값도 싸지게 되니 우리 모두의 이익이다.

범죄나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사적 노력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공적 개입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 현혹적이고 과장된 광고를 규제하기 위한 공공기관, 증권거래 감독기관, 금융거래 감독기관, 건강이나 안전에 관계된 각종 규제기관 등 불공정행위나 사기 및 기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수많은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된다. 이런 공적 예방대책에 소모되는 시간과 노력만 돈으로 환산해도 실로 엄청난 것이다.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신뢰가 굳으면 대부분의 이런 예방대책들은 불필요해지며, 그 만큼 기업의 생산비가 절감되고 개인의 거래비용도 절감된다.

전문가가 아닌 보통 소비자들은 약간 상한 식품이나 약간 유효기간이 지난 식품을 알아내지 못한다. 불량 자동차부속품 때문에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지만, 보통사람들은 진짜 부속품과 가짜 부속품을 구별하지 못한다. 불량품을 대량 유통시키는 업자는 큰돈을 벌겠지만 소비자들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된다. 하지만 모든 업자들이 정직하고 도덕심으로 꼭 차 있다고 하면, 불량품으로 인한 피해도 사라질 것이니 소비자들에게 전문학적 이익이 돌아온다.

이 뿐인가. 약속이라든지, 계약, 협약, 기타 대인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한 사적, 공적 노력 역시 다양하다. 특히 사적 신용기관이나 공적 금융기관의 노력이 두드러지다. 각종 감독관제도, 각종 보증제도, 변호사제도, 판·검사제도, 기록보관소, 공증제도 등이 그 예이다. 사람들의 의무감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신뢰가 강하면 이런 제도들의 필요성은 크게 감소하고 따라서 그런 제도의 유지에 소모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도 필요 없어진다. 결국 우리는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이나 기업은 막대한 비용을 대가로 치르는 셈이다.

이와 같이 도덕심은 거래비용을 절감시킴으로써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 비용을 줄이고 그럼으로써 상거래를 활성화한다. 거래비용이 절감되면 그 만큼

혁신이나 새로운 기술의 개발에 투입할 시간과 돈이 증가하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은 간접적으로 혁신과 기술개발을 촉진한다는 주장도 있다.<sup>15)</sup>

환경문제를 비롯한 공공재 문제로 구체화되는 “죄수의 딜레마” 문제가 제기되면 으레 정부가 개입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한다. 흔히 정부란 죄수의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도 한다. 하지만, 정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곧 비싼 세금으로 해결한다는 뜻이다. 만일 도덕심이 충만하고 사람들 사이에 신뢰가 굳건하다고 하면 정부의 개입 없이도 시민들 스스로가 죄수의 딜레마를 해소할 여지가 많아지게 된다. 그 만큼 작은 정부를 실현하게 된다.

### 3. 사회적 자본의 고갈과 미국 사회의 위기

외국에서는 사회적 자본 혹은 도덕심에 대한 연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후쿠야마교수가 “고신뢰 사회(high-trust society)”라고 부른 미국은 전통적으로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나라였다. 그에 의하면 그 풍부한 사회적 자본이 미국을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으로 그리고 동시에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로 만든 주된 요인이었다. 하지만, 많은 실증연구들이 최근 230년에 걸쳐 한결같이 미국사회의 도덕심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sup>16)</sup> 후쿠야마교수의 저서 『신뢰』도 미국 사회가 과거에는 고신뢰 사회이었지만 최근에 와서는 미국 국민들 사이의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sup>17)</sup>

어떻든 미국사회에서 사회적 자본이 계속 감소해 왔다면 사회적 불신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계속 증가해 왔으리라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이 결과 미국은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도 경찰에 의한 치안유지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쓰는 나라가 되었다. 미국은 전체 인구의 1% 이상을 감옥소에 가두어 놓고 있다.<sup>18)</sup>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죄수라는 것도 큰 문제지만, 돈도 문제다. 미국에서는 죄수 한 사람을 하루 감옥소에 가두어 두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이 일류호텔 하루 밤 방 값만큼이나 비싸다니 감옥소를 유지하는 데에만도 엄청난 돈이 흘러들어 가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sup>19)</sup> 실제로 순전히 공적으로 범집행과 치안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이 90년대 초에 이미 미국 국내총생산의 1.3%에 달하고 있다. 물론 이 돈은 범죄와의 전쟁에 미국 국민이 지불하는 돈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예컨대, 개인적으로 고용한 민간경찰에 지불하는 돈이나 범죄와 관련해서 개인들이 지불하는 보험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데, 미국에서 사설경찰의 수는 공공경찰의 두 배 가까이 된다. 그래도 범죄율은 계속 늘어나기만 한다. 미국의 백화점 운영 인건비에서 청원경찰에 지출되는 부분이 판매요원에게 지불되는 부분보다 더 크다니 뭔가 거꾸로 된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된다.<sup>20)</sup>

미국인은 소송을 많이 하기로 유명하며, 국민 1인당 변호사의 수도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다.<sup>21)</sup> 많은 미국인들은 과거 악수로서 결정해온 문제들을 이제는 법정에서 다투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시민들 사이의 잦은 송사 때문에 미국사람들은 유럽이나 일본보다도 변호사에게 훨씬 더 많은 돈을 바치고 있다. 이런 돈을 전부 합치면 미국 국내총생산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터인데, 이 모든 것이 결국 도덕심 하락에 대하여 미국사람들이 치르는 대가이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사회는 과거에 축적되어 온 사회적자본을 까먹으면서 유지되는 사회라고 후쿠야마교수는 비꼬고 있다.<sup>22)</sup>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마음에 쏙이는 것은, 독일이나 일본과 달리 미국은 시장경제가 세계에서 제일 활성화되어 있고 시장의 원리가 가장 철저하게 적용되고 있는 사회라는 점이다. 21세기를 헤쳐나감에 있어서 미국이 안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으로는 범죄와 가정해체가 꼽히고 있는데, 이 두 문제 모두 경제적 요인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sup>23)</sup>

## III. 가정은 사회적 자본 형성의 중심

### 1. “불량아 정리(Rotten Kid Theorem)”

도덕심이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

로 행동함으로써 배양된다. 영국이 낳은 저명한 자유주의자 밀(J. S. Mill)이 자유를 강조한 주된 이유도 도덕심의 함양 때문이다. 즉, 근육의 힘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도덕적 능력도 사용해야만 증진되는데 이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자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sup>24)</sup> 물론, 그가 말하는 자유는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게 미칠 악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신중한 자유다.

도덕심의 기본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 내지는 이타심이다. 비록 도덕적 행동의 반복이 도덕심을 함양한다는 속설이 경제학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도덕심의 기본이 되는 이타심도 전염병처럼 사람들에게 전염된다고나 할까 혹은 이타적 행동이 모방된다고나 할까, 어떻게 특정인의 이타심이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 이심전심으로 퍼진다는 것은 이미 오래 전에 경제학적으로 증명되었다. 이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베커(G. Becker)교수의 이타심에 대한 연구이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이타심 실천은 다른 사람들을 이타적으로 행동하게 만든다.<sup>25)</sup> 그렇다면 이타심의 실천이 이타심을 확산시킨다는 얘기가 아닌가.

베커교수는 사람들이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가장 전형적인 영역으로 가정을 꼽았다. 가정이나 기업은 엄연히 집단이다. 그러므로 가정과 기업 내부에는 복잡한 역학관계가 있기 마련이다. 이 역학관계가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경우에 따라서는 대단히 크다.<sup>26)</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과 기업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경제학은 가정과 기업을 마치 하나의 개인처럼 취급한다. 예를 들면, 경제학에서 말하는 가정이란 소비에 관하여 합리적 선택을 하는 하나의 개체에 불과하다. 기업 역시 이윤을 극대화하는 하나의 개체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구멍가게나 현대자동차회사나 똑같은 하나의 경제주체로 간주한다.

어떻든 가정이나 기업을 보는 경제학이나 신자유주의의 접근자세 그 자체가 가정과 기업의 참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할뿐만 아니라 현실을 왜곡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sup>27)</sup> 이런 의미에서 가정 안에서의 역학관계를 자세히 살펴본 베커교수의

연구가 돋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베커교수의 연구가 돋보이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가정과 사회적 자본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단초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동안 많은 학자들이 가정과 사회적 자본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말해 왔다.

가정에서 부모는 이타심을 가지고 가족 모두의 복지를 늘 염두에 두면서 헌신적으로 가정을 꾸려나간다. 원래 가정이란 그런 것이 아닌가. 마치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즉, 가격기구)이 거래당사자들 사이의 상충된 이해관계를 적절히 교통정리 하듯이 가정에서는 부모의 사랑 어린 보살핌이 가족구성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적절히 교통정리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족 구성원 그 어느 누구도 이기적으로 행동해봐야 소용이 없다. 예를 들어서 형이 제 욕심만 생각하고 동생을 살살 꼬여서 만 원을 뺏아갔다고 하자. 그러면 부모는 동생의 용돈을 만 원 올려주는 대신 형의 용돈을 만 원 삭감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형은 얻는 것이 없다. 따라서 형은 이기적으로 행동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가족구성원 모두가 그럴 것이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서 동생이 불량배들에게 용돈을 뺏겨서 울고 있다고 하자. 이것을 보고 측은하게 생각한 형이 동생을 도와주기 위해서 동생에게 2만 원을 주었다고 하자. 그러면 부모는 그 형이 기특해서 용돈을 2만 원 이상 올려줄 것이다. 결국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이익이다. 형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 모두가 이타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가정이란 보통 이런 것이다.

물론 용돈에 관해서만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소비 그리고 복지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서 형이 동생의 밥을 뺏아 먹어서 동생이 배를 곯고 있다고 하자. 이것을 보고 가만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부모는 당장 그 동생에게 밥을 주는 반면, 형은 뺏아 먹은 만큼 밥을 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배고파하는 동생에게 형이 자기의 빵을 주고 자신은 쫄쫄 굶었다고 하자. 이것을 보고 가만있을 부모가 또 어디 있겠는가. 부모는 당장 그 형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할 것이다.

이런 예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부모가 가족구성원 모두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면 가족들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서 자신들도 다른 가족들에게 이타적으로(혹은 이타적인 것처럼)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듣고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다. 경제학자들이 늘 그렇듯이 베커교수 역시 이런 상식적인 얘기를 복잡한 수학을 이용해서 하나의 정리(定理)로 정리하였다. 이 정리가 바로 유명한 “불량아 정리(Rotten Kid Theorem)”다. 이 정리에서 베커교수가 보인 것은,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베커교수의 이론에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부모가 이타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한, 다른 가족들이 비록 마음속으로는 서로 시기하고 시샘하더라도 행동만큼은 서로에게 이타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기적이고 시기심이 많은 자녀들도 이타적인 부모 아래에서는 이타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만일 부모가 이타적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 “불량아 정리”와 나란히 베커교수가 증명한 “시기심에 대한 정리”가 이 궁금증을 풀어준다. 만일 부모가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해주지 않는다면(다시 말해서 이타심의 중심축이 없다면), 가족들 사이의 시기심이나 이기심은 가족 전체의 공멸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불량아(rotten kid)정리”라고 하면 이상한 이름의 정리라는 생각과 함께 이론의 명칭과 그 내용이 잘 연결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불량한 부모는 자녀를 불량하게 만든다”는 베커교수의 보충설명을 듣고 나면 어느 정도 이 이상한 명칭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경제학의 논리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이타심이라고 하면 가정을 연상할 정도로 일반적으로 가정은 이타심이 주도하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집단이다.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사회적 자본의 원천으로 가정을 최우선적으로 꼽는다.<sup>28)</sup> 가정 이외의 집단에 대해서는 가정에서처럼 “불량아 정리”가 적용되기는 어렵다. “불량아 정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집단의 구성원 모두를 위해서 이타심을 가지고 헌신하는 중심인물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가정 이

외의 집단에 부모와 같은 사람이 어디 그리 흔한가. 그렇기 때문에 베커교수 역시 일반적으로 이타심의 효과가 가정에서 극대화된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첨언할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타심으로 충만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불량아 정리가 시사하는 바는 소수의 중요한 사람들만 이타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주면 된다는 것이다.

사회전체의 도덕심을 높이고 그래서 사회적 자본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이타적인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물론 각종 법이나 규제를 통해서도 사람들을 이타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징벌과 포상(채찍과 당근)은 오직 행태만 바꿀 뿐 생각도 바꾸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생각, 그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각 개인들을 이타적으로 만들고 도덕적으로 만드는 기법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다.<sup>29)</sup> 다만, 이타심이나 도덕심, 착한 심성 등은 어렸을 때에 길러지는 것이라는 정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의미에서 가정이 어린아이를 기르고 사회화시키는 제1차적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을 별로 없을 것이다. 만일 이타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이타심이 함양되고 이타적 인간이 형성된다는 교육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의 주장이 옳다면, 가정은 이타적인 인간을 만드는 공장이요, 도덕심을 함양하는 장소가 된다.

퍼트남교수도 가정이 도덕심 함양의 중요한 원천임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전통적 가정의 변모가 사회적 자본 고갈의 주된 요인임을 시사하는 말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가정이다. 핵가족이든 대가족이든 가족 사이의 관계가 점차 느슨해지고 있음을 보이는 증거가 엄청 많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일이다. 물론 이런 현상은 사회적 자본의 감소에 대한 우리의 주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한 우리의 주제를 설명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sup>30)</sup>

이렇게 보면, 가정과 시장은 묘하게 대립되는 사

회영역이다. 가정은 이타심이 실행되고 습득되는 곳이며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합리적인 영역인 반면, 시장은 이기심이 실행되고 함양되는 곳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합리적인 영역이다. 가정은 이타심 함양을 통해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곳이고 시장은 그 사회적 자본을 이용하고 소모하는 곳이다.

## 2. 세대간 제로섬 게임?

“불량아 정리”에 의하면, 가정을 포함한 어떤 집단이 도덕심을 함양하고 이타적 인간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한다.

첫째, 이타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중심축이 있어야 한다. 달리 말하면 헌신적 봉사정신을 가진 중심인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이 중심인물이 된다. 만일 부모의 헌신적 봉사정신이 엷어진다고 하면 “불량아 정리”가 성립할 가능성도 그 만큼 적어지며, 따라서 가정에서 이타심이 함양되고 확산될 여지도 그 만큼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이타적 중심인물이 구성원 모두를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 “불량아 정리”는 가족구성원 각각에 관하여 부모가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한다. 아무리 가정에서 부모가 헌신적 봉사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성원들, 특히 부모가 너무 바빠거나 다른 일로 정신이 없으면 구성원 각자에 대하여 완전한 정보를 가지기가 매우 어렵고 따라서 구성원 각자에 대하여 세심한 배려를 할 수도 없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부모가 헌신적으로 어린아이들을 돌보아주는 시간, 달리 말하면 교육자들이 말하는 소위 “친자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 그렇다면, 그 두 가지 요건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의 우리 가정은 어떤가? 교육자들은 요즈음 우리 아이들의 ‘정신’이 부실하고 ‘의식’이 왜곡되어 있다고 자주 말한다. 정범모교수는 이렇게 된 첫째 원인을, 현대사회에서 부모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아이

들이 실질적으로 버려진 채 자라고 있다는 데 있다”고 말한다.<sup>31)</sup>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어릴 때의 경험이 인간 정신, 그의 의식구조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통속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도 그리고 근래 더 활발해진 두뇌의 생리적 발달에 관한 연구에서도 점점 더 심각하게 밝혀지고 있다. 그러한 어릴 때의 경험에는 가정의 부모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의식개혁의 첫 조건은 부모의 행태와 역할을 개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 부모가 아이와 같이 지내면서, 눈도 맞춰주고 용아리도 받아주고 안아주고 이야기도 해주고 놀아주고 하는 시간, 이름지어 <친자시간(親子時間)>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시간에 의해서 아이의 두뇌 발달, 심성 발달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런 친자시간 속에서 아이의 지능, 창의력, 정서, 도덕 등이 형성되어 가는 것이다.<sup>32)</sup>

정범모교수의 주장이 시사하는 바는 결국 오늘날의 많은 가정이 “불량아 정리”가 상정하는 가정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 산업사회의 핵가족 형태에서는 주부들마저 돈벌이로 집을 비우게 되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유치원, 보육원, 어린이집에 맡겨지고, 집에 그리고 거리에 혼자 내버려져 있는 아이들이 많아졌다. 그 결과 아이들의 정신과 의식은 왜곡되고 불건전해졌다.” 바로 이것이 “현대 산업사회가 내포하고 있는 커다란 내적 문제 중의 하나”라고 그는 단정지며 다음과 같이 “세대간 제로섬 게임” 가설을 제기하고 있다:

세대간 제로섬 게임이란, <친자시간>이 적으면 엄마 아빠는 출세, 돈벌이, 자기 실현의 이득을 보겠지만, 아이는 그만큼 능력, 정서, 도덕성의 발달 부진으로 손해를 보고, 반대로 친자시간이 많으면 부모는 자기 실현에 좀 손해를 볼는지 모르지만, 아이는 능력, 정서, 도덕성이 충실하게 발달하는 이득을 보는 관계,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손해와 이득의 합계는 제로가 되는 관계를 말한다.<sup>33)</sup>

## 3. 기정에 있어서 상품화와 사회적 자본 감소

그러면, 왜 친자시간이 줄어들고 있는가? 정범모교수는 오늘날 가정의 변모, 특히 핵가족화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정범모교수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학자들과 교육자들도 현대산업사회의 핵가족화와 친자시간의 감소 사이의 관계를 자주 지적한다. 이들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지만, 충분치는 않다. 문제를 좀 더 근원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상품화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34)</sup>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는 돈으로 때우는 일이 너무 많아져서 부모 중 한 사람의 소득으로는 도저히 생활을 꾸려나가기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이제 웬만한 가정에서는 맞벌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직업현장은 예전과 같이 느슨하지도, 낭만적이지도 못하다. 누가 말했듯이 21세기는 무한경쟁의 시대이다. 직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은 맞벌이 부부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안기면서 이들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치게 한다. 그러니 친자시간은 양적으로 감소하고 그 내용도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시장원리의 바람을 타고 확산되는 자유주의, 개인주의 풍조도 일조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과거 우리의 부모처럼 자식을 위해 무작정 헌신하는 풍조는 점점 사라질 것이다. 이제 부모들 모두 자기 자신의 즐거움과 자기 자신의 계발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시대에 친자시간이 감소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다.

교육에 있어서 상품화 현상, 예컨대 사교육 비중의 급격한 증대도 친자시간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요즘의 많은 어린아이들은 이 학원에서 저 학원으로 뛰어다니느라고 어른 못지않게 바쁜 생활을 하고 있다. 부모와 자식간에 진지한 대화를 할 여유가 없다. 이렇게 온 가족이 바쁘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으니 부모가 자식들의 신상을 환하게 알 수도 없고 따라서 세심한 배려를 해주기 더 어려워지고 있다.

비단 부모-자식간의 대화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들 사이의 대화, 나아가서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대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퍼트남교수가 특히 주목하는 현상은 여가시간의 급속한 개인화이다.<sup>35)</sup> 요즘의 사람들은 여가시간을 철저하게 혼자서만 즐기려

고 한다. TV와 비디오가 대량 보급되면서 각 가족들은 혼자서 TV나 비디오 보기를 즐긴다. 더욱이 요즘에는 전자게임이 광범위하게 보급되면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얘기할 틈이 더 없어졌다.

이와 같이 베커교수의 연구결과와 가정의 상품화 현상을 연결하면, 오늘날의 가정은 점점 더 사회적 자본 형성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물론 가정만이 이타심을 기르고 사회적 자본 형성의 기틀을 마련하는 유일한 곳은 아니다. 학교도 있고 지역사회도 있고 각종 사회단체도 있다. 특히 학교에서의 도덕교육은 자라는 청소년들의 도덕심을 기르는 데에 매우 중요한 장소로 꼽힌다. 하지만, 우리의 교육현장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임시학원이거나 창백한 지식을 전달하는 장소이도 덕심을 함양하는 장소는 아닌 것 같다. 오늘날 지역 사회란 대부분 이웃끼리 인사도 하지 않고 지내는 곳이니 거기에서 도덕심이 크게 함양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리 사회에서 이타심 내지는 도덕심에 관한 한 아마도 가정이 가장 중요한 장소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 IV. 맺는 말

오늘날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가정의 구조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래서 한부모가정, 독신가정, 동거가정, 동성가정 등 가정의 형태도 무척 다양해졌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가정의 급격한 변모를 매우 걱정스럽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다. 동일한 가정변모 현상에 대해서도 '가정해체'라든가 '결손가정'이라는 부정적 표현이 있는가 하면, '가족의 유연화'라든가 '열린 가족'이라는 부드러운 표현도 있다. 이와 같이 오늘날 가정의 변모를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에는 각 개인이 독신으로 살든 말든, 결혼하든 이혼하든, 재혼하든 계약결혼하든, 그것은 전적으로 그의 합리적 결정에 맡겨야 하며,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신장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담겨있다. 이런

가정형태의 다양화가 개인의 자유를 크게 신장시키는 것이 사실일 지도 모른다. 독신의 자유를 즐기는 남성과 여성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결혼해서 살다가도 수틀리면 가차 없이 헤어지는 자유도 보장된다. 계약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편한가. 귀찮으면 아무 때나 갈라설 수 있으니. 참으로 자유로운 세상이 왔다.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자유스런 결정에 맡기다보니 가정의 형태가 이렇게 다양화하고 가정해체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이제 여성들은 엄마의 노릇이 얼마나 수지맞는지, 아내의 노릇이 얼마나 수지맞는지를 꼼꼼히 계산하는 합리성을 강요받고 있다. 계산해보면 오늘날의 사회에서 엄마의 노릇이나 아내의 노릇이 별로 수지맞는 일이 아니라는 것은 높은 독신률, 높은 이혼율 등에 나타난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란 없다. 개인은 자유를 얻어서 좋겠지만 때로는 그 대가를 사회전체가 혹독하게 치러야 한다. 특히 사회적 자본의 측면에서 보면, 오늘날 급격한 가정의 변모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저해하면서 우리 사회를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비싼 사회”를 만들고 그 부담은 다시 자유를 추구하는 각 개인들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가정이 사회적 자본 및 도덕심 함양의 주된 원천이라고 하면, 한 가정을 잘 꾸려나가는 것은 비단 해당 가정의 구성원에게도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에게도 큰 이익이 된다. 가정이 잘 못되면 해당 가정의 구성원도 피해를 입겠지만, 또한 사회 전체도 큰 손실을 입게 된다. 다시 말해서 가정은 사회전체의 이해가 걸린 사적 영역이라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은 다분히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며 따라서 가정이 잘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에는 초점이 잘 잡혀 있어야 한다. 사회적 자본의 측면에서 보면, 중요한 것은 부모가 “불량한 부모”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부모가 “친자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 ■ 주

- 1) 조선일보, 2003년 8월 11일자 기사.
- 2) “가족해체”라는 말은 다분히 규범적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서 학술용어로서의 적절성이 의문시된다. 하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나 한국여성개발원 등 공공기관의 연구에 이 용어가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어서 편의상 본 논문에서도 가족해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 3) 장영숙(1998), 『결혼경제와 시장경제』, 대구: 대구대학교 출판부, 26쪽.  
김승권의 3인(2001), 「최근 가족해체의 실태와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4) 김영모(1999), 『한국사회의 이해』,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71쪽.
- 5) 한국여성개발연구원(2000), 『최근 가족해체 실태 및 복지대책』, 31쪽.
- 6) 프랜시스 후쿠야마(한국경제신문 옮김, 2001), 『대붕괴 신질서』,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89쪽.  
미국에서는 결혼으로 태어난 아이들의 절반 이상이 성인으로 성장하기 전에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머지 않아 우리 나라도 이렇게 될 모양이다. 이혼이나 부부갈등은 자녀들에게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준다. 마약과 술을 상습적으로 복용하는 청소년의 대부분이 부모의 이혼이나 부부갈등으로 시달림을 당한 아이들이라는 사실이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 이혼과 재혼이 잦으면 이사를 많이 가게 되고 그래서 자녀들은 급변하는 가정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불안을 겪게 되고, 글쓰기, 읽기, 듣기, 계산하기 등의 학습능력에 있어서도 크게 뒤떨어지게 된다고 한다.
- 7)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전교학신문」 2001년 1월 16일 기사, “미국의 가정” 참조.
- 8) 프랜시스 후쿠야마(한국경제신문 옮김, 2001), 『대붕괴 신질서』,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33쪽-198쪽.
- 9)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결과에 의하면 부부가족(14.8%), 부부와 미혼자녀(57.8%), 부부와 양편친(1.1%), 부부와 양편친과 자녀(6.8%)로 나타나 이를 합하면 80.5%가 일인가정이라 할수 있음.  
또한 한국여성개발연구원(2000)의 『최근 가족해체 실태 및 복지대책』에 의하면, 일반가구가 80.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p13)
- 10) 김승권 외(2001), 「최근 가족해체의 실태와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1) 변화순·송다영·김영란(2001), 「가족유형에 따른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36쪽.
- 12) Fukuyama, F.(1995), Trust, New York: Simon & Schuter.
- 13) 프랜시스 후쿠야마(한국경제신문 옮김, 2001), 『대붕괴 신질서』,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36쪽.
- 14) 앤서니 기든스(2000), 『질주하는 세계』(박찬욱 역), 서

울: 생각하는 나무, 11쪽.

- 15) Knack, S. and P. Keefer(1997), "Does social capital have an economic payoff?: A cross-country investiga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Nov.)
- 16) 자세한 내용은 다음 문헌 참조: 이정전(2002), 『시장은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서울: 한길사
- 17) 퍼트남교수는 미국 사회의 장기적인 사회적 자본의 감소 현상 좀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자주 인용되는 그의 유명한 논문의 제목이 "홀로 불링하기(Bowling Alone): 미국의 감소하는 사회적 자본"이다. 이 제목이 시사하듯이 미국에서는 혼자 불링하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옛날에는 미국사람들이 단체로 불링을 많이 했던 모양이다. 단체로 운동하면 사람들 사이의 교류가 활발하게 진전되고 돈독한 인간관계가 쌓이게 되며 이런 가운데 사회적 자본 형성의 기틀이 마련된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혼자서 불링을 치기 때문에 불링장 주인들이 울상이라고 한다. 여러 사람들이 불링을 칠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면서 돈을 많이 쓰기 마련인데, 혼자서 불링 치는 사람들은 대체로 운동만 하고 조용히 사라지기 때문이다. 물론 혼자서 불링 치는 사람이 많아지는 현상은 미국사회에서 사회적 자본의 감소추세를 단적으로 보이는 하나의 상징에 불과하다. 퍼트남교수는 미국에서 사회적 자본의 전반적 감소 추세를 보이는 여러 가지 증거를 대고 있다.
- 18) Fukuyama, Francis,(1992),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New York: Free Press, p.11
- 19) McRae, H.(1994), The World in 2020,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p.18.
- 20) McRae, H.(1994), The World in 2020,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p. 35.
- 21) 프랜시스 후쿠야마(2001), 『대붕과 신질서』(한국경제신문사 옮김),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47쪽.
- 22) Fukuyama, Francis,(1992),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New York: Free Press, p.11
- 23) McRae, H.(1994), The World in 2020,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p.34.
- 24) Riley, J.(1988), Liberal Utilitarian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25) Becker, G. S.(1981), A Treatise on the Famil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26) 예를 들면, 대가족제에서 소가족제 그리고 핵가족제로의 변천이 가족구성원 사이의 관계나 가족구성원의 가치관 및 인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사회적으로도 의미미심장하다. 거대기업의 사회적 영향력 그리고 기업내부의 노사갈등 역시 엄청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한다.
- 27) Bowels, S. and H. Gintis(1986), Democracy and Capitalism, New York: Basic Books, Inc. Publishers, pp.15-17.
- 28) 이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 참조: Newton, K.(1997), "Social capital and democracy" in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40, No. 5(Mar./Apr.) Putnum, R. D.(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Vol. 6, No.1(Jan.)
- 29) Reeder, M. W.(1979), "The place of ethics in the theory of production", in M. J. Boskin ed, Economics and Human Welfare, New York: Academic Press.
- 30) Putnum, R. D.(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Vol. 6, No.1(Jan.).
- 31) 정범모의 13인(1999), 『21세기를 향한 교육개혁』, 서울: 민음사, 23쪽.
- 32) 정범모의 13인(1999), 『21세기를 향한 교육개혁』, 서울: 민음사, 23쪽.
- 33) 정범모의 13인(1999), 『21세기를 향한 교육개혁』, 서울: 민음사, 24쪽.
- 34) 가정에 있어서 상품화 현상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문헌 참조: 이정전(2002), 『시장은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서울: 한길사
- 35) Putnum, R. D.(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Vol. 6, No.1(Jan.).

### ■ 참고문헌

앤서니 가든스(2000), 질주하는 세계(박찬욱 역), 서울: 생각하는 나무.

김승권의 3인(2001), 최근 가족해체의 실태와 정책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화순, 송다영, 김영란(2001), 가족유형에 따른 생활 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이정전(2002), 시장은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서울: 한길사.

장영숙(1998), 결혼경제와 시장경제. 대구: 대구대학교 출판부.

정범모의 13인(1999), 21세기를 향한 교육개혁. 서울: 민음사.

프랜시스 후쿠야마(2001), 대붕과 신질서(한국경제신문 옮김).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한국여성개발연구원(2000), 최근 가족해체 실태 및 복지대책.

Becker, G. S. (1981). A Treatise on the Famil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Fukuyama, F. (1992). The End of History and the

- Last Man, New York: Free Press.
- Fukuyama, F. (1995). *Trust*, New York: Simon & Schuter.
- Knack, S. and P. Keefer (1997). Does social capital have an economic payoff?: A cross-country investiga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Nov.)
- McRae, H. (1994). *The World in 2020*.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 Newton, K. (1997). Social capital and democracy, in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0(5)(Mar./Apr.)
- Putnum, R. D. (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1)(Jan.)
- Reder, M. W. (1979). The place of ethics in the theory of production, in M. J. Boskin ed. *Economics and Human Welfare*, New York: Academic Press
- Riley, J. (1988). *Liberal Utilitarian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